

순천만 월동 흑두루미 7238마리, 번식지로 복상

개체수 증가로 서식지 확대 환경저해시설 단계적 철거

순천만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월동을 마치고 번식지를 찾아 복상했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올해 순천만에서 월동한 흑두루미는 7238마리이며, 작년보다 41% 개체수가 증가했다.

지난 2022년 11월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순천만으로 역유입했던 흑두루미 중 절반가량인 3000여 마리가 2023년 가을에 일본으로 가지 않고 순천만에서 월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월동지와 번식지를 오가는 이동 시기에 순천만을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흑두루미도 8661마리로 조사됐다.

국제두루미재단은 순천만 흑두루미 보전과 한국 내 서식지 보전을 위한 순천시의 노력에 주목하고 있다.



순천만에서 월동하던 흑두루미가 월동기를 마치고 번식지를 찾아 복상했다.

순천시 제공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늘면서 대대적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뿐만 아니라 별량면 학산들, 해룡면 상내들 등 순천만 인근 농경지로 서식지가 확대되고 있다. 어싱길과 순천만 탐조대는 흑두루미 탐조 거리가 70~80m로 가까워지면서 수

박과 연계한 탐조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기도 했다. 올해부터 큰고니, 황새 등 순천만 조류 종다양성 증진을 위해 새삼매자기 복원, 무논 조성, 농경지 내 환경저해시설 철거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계절별 탐조 선

동선을 개발해 체류형 고품격 탐조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만 갯벌에는 알락꼬리마도요, 민물도요, 검은머리물떼새 등 도요물떼새들이 도착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전남도민 대상 배우 100명 모집 순천시-전남영상위원회

순천시는 전남영상위원회가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배우 100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남배우’ 사업은 지역의 보조출연자를 모집하고 교육하는 사업으로 도민 참여를 통해 지역 영상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배우로 선발된 도민들에게는 전문 프로필 촬영 및 전남도에서 촬영하는 영화나 드라마에 보조출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보조출연자 역량 강화 등 3회차에 걸친 교육이 함께 진행되며 전남 동부권(순천)과 서부권(목포)으로 나눠 각 50명씩 교육한다.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전남배우 DB에 등록돼 향후 보조출연 기회가 왔을 때 활용된다.

전남배우는 전남도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기 경험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오는 14일까지 모집하며 전남영상위원회 누리집(www.jnfc.or.kr)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교육 일정 등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남영상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 오동도 음악분수 가동 12종류 분수쇼 선보

여수시 오동도 명물 음악분수가 본격 운영됐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오동도 음악분수 운영은 오는 10월31일까지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30분 간격으로 15분간 운영된다. 주말은 한 시간 일찍 가동에 들어간다.

올해는 스윙 무빙 노즐을 신규로 설치해 화려하고 역동적인 분수쇼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신가요·인기드라마·영화OST를 포함한 총 20곡의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12종류의 분수쇼가 펼쳐진다.

음악분수 운용에 앞서 음악프로그램 최신가요 10곡을 추가하고 부품을 교체하는 등 정비를 마쳤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10일부터 오는 10월말까지 오동도 명물 음악분수를 운영한다. 최신가요·인기드라마·영화OST를 포함한 총 20곡의 음악과 화려한 조명이 어우러진 12종류의 분수쇼가 펼쳐진다.

여수시 제공

섬 지역 고교생 교육복지 증진 여수시, 조식·여객선 운임 지원

여수시가 교육환경이 취약한 섬 지역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에게 조식비와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여객선 운임비는 현재 섬 주민의 운임료 1000원을 준용, 차액분을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

또 관내 유일한 섬 지역 고등학교인 여남고등학교 기숙사 입사 학생들에게 성장기 체력 향상을 위해 전남도교육청과 1:1 대응해 조식비를 지원한다.

김중원 평생교육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섬 지역 고등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교육여건 개선으로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각급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해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미래교육도시 여수’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올해 총 100억원의 교육경비로 △고등학교 지원 △지역 인재 육성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복지 향상 △에체능·인성·적성 함양 △학교 환경개선 등 6개 분야, 46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별교역~고흥읍~녹동항 잇는 철도망 구축 토론회

고흥군, 12일 문화회관서 개최

고흥군은 별교역~고흥읍~녹동항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12일 오후 2시30분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철도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흥군과 서울과학기술대학에서 공동 주최한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및 청중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서울과

학기술대학 김시근 교수가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한다.

발표 후에는 목포대 신순호 교수를 좌장으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군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도로망과 철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토론회’를 시작으로 철도망 구축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철도망 구축은

2030 고흥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 산업이다. 이를 통해 접근성이 개선되면 지역발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철도를 구축하는 데 다양한 정책 방향과 발전전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우주선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본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장흥군 “지역사회와 함께 암 이겨내요”

장흥군은 오는 19일부터 7월까지 가정에서 요양 중인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프로그램을 매월 운영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재가암 자조모임은 환자와 가족 간에 암 극복 사례 및 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활 의지를 북돋기 위한 건강관리 사업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울증, 불면증 관

리교육 △아로마테라피 △웃음치료교실 △항암발효식초 만들기 △마음건강치유센터 힐링프로그램 체험(헤어스파, 항암약죽, 온열테라피, 뜸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군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환자와 가족들에게 암 질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지를 이어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경우 약 1/3은 완치가 가능하다.

장흥군 보건소 관계자는 “재가암 자조모임이 재가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안과 격려가 되어 암관리와 극복의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암환자를 위한 암정보 교육과 정서지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참여는 061-860-64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소방서, 고흥사랑기부제 동참 1380만원 자발적 기부

장흥소방서(서장 최동수)는 지난 8일 장흥군청을 방문해 138명 직원들이 참여한 고흥사랑기부금 1380만원을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고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운동의 일환으로 제도 취지에 공감하는 장흥소방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장흥군에는 전남소방본부, 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가 들어서었고, 지난해에는 국민안전체험관 유치에 성공하며 ‘안전의 메카’로 주목받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뜻깊은 기부에 감사하다. 소중한 기부금은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장흥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수장흥소방서장은 “고향사랑기부제에 앞장서 참여해 준 우리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 이 같은 기부문화가 다른 기관으로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

全南日報